

# '구들문화 재현' 30여년 외길

## 신문박의 禪

구들연구가 최영택 씨

뜨뜻한 아랫목이 그리운 때이다. 구들장 끼고 드러누워 추위를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수 십년전 생각이고 구세대의 향수일 뿐이다. 요즘엔 구들이라는 말조차 사라지고 있다. 구들 대신 시멘트바닥에 온수파이프를 깔 난방장치가 널리 보급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보일러식 난방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구들의 '뒷목 아랫목'을 빼앗겼다. 또 '파식문화'로 표현되는 한민족 생활문화가 서양의 입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 하며 30여년을 구들연구에 바친 최영택씨(66, 구들학회 회장), 구들 종주국의 자부심을 지키는 인생을 산 그를 두고 난방업계에서는 '옹고집 노인네'로 불린다.

최씨가 오랫동안 구들연구를 하면서 얻은 결론은 우리민족 고유의 구들이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훌륭한 발명품으로 미래 난방방식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구들은 우리 조상의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민족문화의 원천입니다. 한번

**"조상들은 구들을 답혀  
난방도 하고 밥도 짓고  
빨래 말리고 情도 나누고"**

불교의 중국전과 길목인 간다라나 돈황동굴에는 남아있는 불상보다 서있는 불상이 많지만,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걸터앉은 반가상이 생겼더니 우리 나라서는 주로 발을 괴고 결과부좌로 앉으셨다. 앉은 바닥이 체온에 가장 안정감을 주는 구들이라는 문화구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최씨의 구들장 인생은 6·25 한국전쟁이 터져 학도병으로 참전하면서 비롯된다. 영하 30℃의 추위를 견디다 못해 종탄을 넣는 철상자를 깨서 고래(공간)로 만들고 흙을 덮어 구들로 쓴 것이다. 고향이 흠기로 소문난 함경북도라 구들쓰는 달이 많아 어려서부터



위영란 기자

## 88년 '굴뚝없는 접구들' 개발 우리것 보급 앞장 美·獨 등서 특허... '미래난방 대안' 세계가 인정

의 연료로 여러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구들을 답혀서 그 열로 아궁이에서 밥짓고 떡거리를 장만했으며, 답혀진 방안공기로 빨래도 말리고 천정엔 매주도 매달았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구들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생을 마쳤습니다. 죽은 후에는 구들을 짓는 것보다 받았습시다. 모든 삶이 거기에 비롯되고 거기서 끝난 셈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즘엔 서양식 난방방에 밀려 구들이 사라진 것 같아 아수위한다. 오히려 서양은 동양회귀(東洋回歸) 현상으로 일타에서 바쁘게 돌아가다가도 집에 들면 구들을 벗고 바닥에 보다는 육체를 접촉시켜서 살고 있다고 하는 정적 지향에 들어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우리 민족처럼 앉아서 사는 정적인 정착문화권에서는 구들난방이 심상이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보다는 육체를 접촉시켜서 생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불상도 서계신 부처님보다 앉아계신 부처님이 더 많은 것도 구들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료인 나무하러 가는 일부터 구들에 불지피고 고치는 일에 이력이 있던 그가 충분히 응용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씨에게 구들이 '삶의 화두'로 찾아온 것은 60년 막 겨울을 벗어난 초봄, 재래주 건축회사를 다니던 그가 신원에서 '연탄가스에 일가족이 중독돼 죽었다'는 당시로서는 아주 흔한 사회적 기사를 보고 부터이다. '사람이 죽는다.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잡게 된 것이다. 또 실제 건축현장에서도 집짓는데 구들로 놓을만한 결종은 '구들장 돌'의 확보가 쉽지 않았고, 이미 무연탄 연료가 유행하고 있었다.

"구들개조를 위해 관련자료를 찾으려 했지만 별무소득이었습니다. 도서관, 고서점들을 온통 뒤져봤지만 발달이 없더라고요. 사실 구들은 예로부터 흔한 것이라 특별히 연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미장이 직업이 천대받아와 자료다운 자료가 없었던 것도 당연하지요."

구들연구한다고 찾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그는 실업자가 돼있었다. 64년부터

터는 자료도 정리하고 실험도 하며 때론 구들시공도 직접 맡아 가정생계도 거뜬했다. 그렇게 20여년. 마침내 88년 그는 옛구들의 명맥을 그대로 이은 현대식 구들을 발명했다. 살아전기를 이용해 아궁이와 굴뚝이 없다면이진 배어있는 옛구들이다. '접구들'로 명명된 이 연구는 '회기적인 개발'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그의 접구들 연구는 그해 <한민족 문화원류의 원천 구들>이라는 책으로 정리 발표됐다. '접'이라는 발음에서 알 수 있듯이 두개의 구들을 만들고, 각각의 구들 아래에 전기히터를 가동시켜 그 열로 밥을 데우는 난방장치이다. 전기도 심어전력을 이용해 하루 종일 실내를 데울수 있어 경제적이다.

최씨는 88년 스스로 '현대전지구들'이라는 주시회사를 차렸다. 대기업들이 상업성이 떨어진다고 접구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회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등 1천가구에 접구들을 시공했다. 강원도 인제에 있는 문안사의 요사

채 10개 방에도 접구들을 깔았다. 또한 발명특허만해도 미국서 4개 독일서 3개 일본서 1개를 따냈고, 제네바국제발명기술 전시회등 세계적인 기술 전시회에서 자신이 개발한 구들로 금메달 3번 은메달 2번을 수상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세계최초로 학계 교수들과 힘을 합쳐 '구들학회'를 창립, 첫 학술발표회도 가졌다.

연탄의 등장과 함께 가스중독 사고가 늘면서 이를 막기위한 연구가 활발했다. 서양의 보일러 기술을 바닥난방에 응용한 온수보일러가 기름과 가스등으로 쉽게 연료를 바꾸기는 했으나, 근본적으로 선조의 지혜인 구들의 구조 및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 바로 이 일을 최씨는 화두로 잡았다. 고향의 화두들이 '세계난방의 종주국'은 우리나라'라는 믿음의 재확인이다. 그는 당장은 국내에서 어렵다해도, 구들난방은 반드시 세계 난방문화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위영란 기자

### 극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 ① 성철스님 법문집에 '정토삼부경의 서방극락설은 방편으로, 이는 거짓이며 현실 이데올로기 극락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자기 지은 바 대로 삼계육도에 윤회한다고 하는데 이에대해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② 불교에서는 인간의 질병, 예컨대 불치병 유전병 등은 전생의 업보 탓이라고 하는데 현대의학 및 유전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난치병도 완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업보라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③ 우주생성의 기원 및 생명체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업람일·경복 청승군 진보면>

답 ① 모든 존재는 각자 마음의 차원 그대 그 수준에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마음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승천을 하게 되지요. 그런 걸 우리는 육도에 윤회한다고 합니다.

### 지 상 상 담

### 길 묻는 이에게



이 그대로 극락일 것이고 삼독심에 젖어 산다면 지금의 삶이 그대로 지옥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철스님께서 그렇게 밖에 말씀하실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뜻을 바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서방극락세계라는 경계에 매일이 걱정하시고 그것 또한 방학하라 하시지 않지요.

② 마음은 비유하면 거대한 컴퓨터와 같습니다. 일으킨 한 생각이라도 낱알이 기록이 됩니다. 거기서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나는 수억억을 살아오신 동안 뭉치고 뭉친 업의 덩어리라고 하고... 또는 업이라는 노비문서자 하는 끝까지 달달달을 쟁여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은 것은 그 무엇이 되었던 빠짐없이 기록되어서 우리는 그로부터 한발짝도 도망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말했듯이 죽어도 떨치지 못합니다.

그렇다가 조건이 맞으면 현실의 경계로 슬슬 풀려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통의 생산공장이 되는 셈입니다. 질병을 포함한 모든 고통, 고통만이 아니라 즐거움까지도 다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의 결과로 내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학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담담은 조계종 한양산원 대흥사법계 등 교단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그러나 육도가 어디 따로 따로 구획을 정하듯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어느 경우엔 축생계로 가고 어느 경우엔 천상계로 간다는 식, 말하자면 그렇게 교통정리하듯이 가는데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몸통이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차원에서는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죽은 세상이나 산 세상이나 둘이 아닌 것이지요. 이 육신으로 말하면 있고 없고가 있지만 마음의 차원에서는 실사 육신이 죽었다 할지라도 죽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죽는 것을 못 벗는 것에 비유하지요? 육신은 그야말로 옷을 벗어버리듯, 장갑을 벗어버리듯 벗을 수 있지만 마음은 장갑을 벗어도 내 손 그대로 있듯이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은 생전의 차원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독사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죽어서도 그 마음은 생전의 독사같은 마음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독사굴에 들어간 셈이지요. 돼지같이 탐욕스러웠으면 또 돼지같은 마음 상태로 남을 것이구요.

그게 바로 육도윤회입니다. 생전에 보살심으로 살았으면 죽어서도 그 마음은 천상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락이 따로 있고 축생계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 차원에서 극락 축생 아귀가 있는 것이지요. 또 죽어서만 극락 축생이 아니라 산 채로 그대로 극락이요 축생입니다. 가령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삶

게 다가오는데 불치병이니 암이니 하는 것도 다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대로 의학이 발달되어서 난치병도 완치되니 업보란 없는게 아니하시는데 뿌린 것은 잘대로 썩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이 달라져서 예전엔 꼭꼭이 죽을 병이었다가도 요즘에선 치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업보가 없느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 설킨 인과의 법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가령 내가 밥을 때렸을 경우 죄값만큼 형을 살기도 하지만 보상을 하고 할아버지는 경우로 대대도 벌이 없었기 때문에 업보가 어찌됐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마음으로 지은 것이니까 부처님이 가르쳐주시는 마음의 도리를 알아 나온 곳에 되돌음으로써 업을 녹이는 도리는 있습니다.

③ 우주의 생성이나 생명체의 탄생을 다 한마음, 영원한 생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단순히 물질의 차원만 말하는 데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럴 믿지 않고 물질세계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천만의 과학자라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법에서는, 아니 불법이 그대로 진리입니다만 한 마음 또는 한 생명-그것도 아닙니다만-이 사대로 벌어지고 사대의 다 독특한 맛에 따라 유전자가 탄생하고 온 우주로 확산되어 거기서 수많은 생명체 수많은 별들이 나뉘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공부에서 우주탄생의 기원따위가 아닙니다.

## '97학년도 조계사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개강 : 3월 10일 (입학식:3월8일)

### (1)모집부문

학 과	학제	모집인원	비 고
불교학과	2년 4학기	주간·야간 각60명 통신 0명	과목별 수강도 가능

### (2)입학자격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기초교리, 교양대학 수료(고졸이하 학력소지자의 경우)

### (3)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본 대학 소정양식)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기초교리 수료증 사본 1통(고졸이하의 경우)

### (4)특전

조계종총무원 발행 포교사 자격증 취득(자격고서를 거쳐 졸업장 수여,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5)학과별 및 강사

구 분	1학년		2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과 목	종교입문	불전개설	대승불교	포교론
	불교문화	한국불교사	중국불교사	선사상
특 강	원시불교	불교윤리	공경경	불교사회사상
	학기중 2회			
강 사	현근섭, 상목스님, 현각스님, 종석스님, 종호스님			
	권기중, 조용길, 정명호, 선진규, 정병성, 박경준, 김성영, 김용표, 최홍석, 김경진, 김진태, 김태영교수(우원)			

\*강사와 교과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강의일시 : 매주 월, 화, 수요일

주간/오후 2시~3시30분 야간/오후 7시~8시30분

조계사내 제1, 2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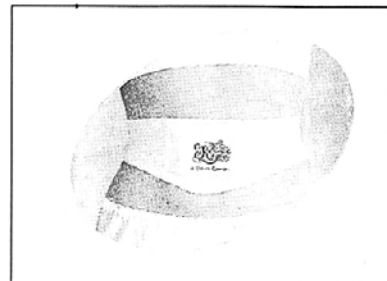
(7)원서 접수 기간 : 1997년 1월 15일 ~2월28일

### 조계사불교대학 교무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720-1390,6742 F.720-1391

##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  
를  
사  
용  
해  
보  
세  
요!

항비를 사용한 체험담

###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 어느분을 통해서 항비라는 조그마한 액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아가 엄마의 땃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 5. 기미가 있다. (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 14. 팔뚝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 16.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 17. 변비가 있다. ( )
- 18. 당뇨와감성선으로고통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